

경찰이 되레 범죄꾼.. 불신도 넘었다

금고털이에 도박·음주·수뢰까지 자정결의 해박야.. 시민들 “못믿어”

경찰 비리가 통제 불능이다. 뇌물 수수에 횡령, 성매수·성폭행, 금고털이에 증거 인멸까지 일일이 끊기 벅할 정도로 즐기기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이다. ‘경찰이 무서운 세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이 ‘무서운’ 세상 = 경찰의 비리와 기강 해이는 도(度)를 넘어선 지 오래다. 경찰이 ‘주인공’이 된 비리 행태도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고 웅감 무쌍해지고 있다. 여수경찰의 경우 영화 못지 않은 블랙버스터급 결

정판이다.

현직 경찰이 금고털이에 가담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누가 오나 망을 봐주고 훔친 돈을 나눠갖는가 하면, 재미가 쏠렸는지 또 다른 금고 털이기에 나섰다. 한 경찰은 아예 사건을 조사하면서 성폭행을 하는가 하면,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뜯는 사채업에도 뛰어 들었다. 진도에서는 경찰이 경찰 수련원의 기를 구입 비용 등 2억 2000만원에 유용한 혐의로 적발돼 파면됐고, 장성 경찰은 직원의 건강 보험료를 관리하다가 주시에 투자했다가 해임되기도 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뇌물수수, 횡

령, 성매수,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비리가 고위 간부부터 중간 관리자급, 일반 직원까지 거르지 않고 터져 나온다.

◇그칠 줄 모르는 비리민생 치안은 뒷전 =이찬열 민주통합당의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 3년간(2009~2011년) 10만명당 살인·강간 등 7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 반면, 이기간 검거율은 38~59% 수준에 머물렀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3년(2010~2012) 전국 경찰서별, 지역별 범죄 현황’ 자료를 통해 불안한 치안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해 범죄 발생 건수는 1005건으로, 지난 2010년(671건)에 비해 49.8%(334건) 늘어났다. 전복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여수살인·강도·강간·절도 등 4대 범죄 발생 건수가 ▲2010년 1247건 ▲2011년 1289건 ▲2012년 1522건으로 폭증했다. 일단 비리로 정작 민생 치안에는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정 능력도 상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현직 경찰 비리 등 잇따른 비리 사건 이후 ‘부패 개혁’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 총경급 간부들이 두 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위급 이상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리 척결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올해도 여수경찰 전 간부를 교체하는 해신인사를 실시했지만 그뿐이다. 담양경찰서 소속 직원은 보란 듯이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전남 성범죄자 3명 행방 ‘오리무중’

재범 우려 높아 지역민 불안

성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36명의 행방이 묘연하다. 전남에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자신의 신상을 등록한 거주지에 살지 않고 경찰 탐문 수사에도 행적 이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 전과자의 행방을 놓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성범죄 전과자 36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의 경우 목포·담양경찰에 신

상정보를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난 성범죄 전과자가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로, 법원으로부터 등록 명령을 받게 되면 이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및 소재지,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 사항들을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또 이번 점검에서 교도소 출소 후 신규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29명, 변경된 신상 정보를 20일 이내에 내지 않은 71명(전남 7명), 거짓 정보를 제출한 7명, 사진 제출 기한인 1년을 초과한 91명(광주 1명·전남 4명) 등 총 198명을 형사 입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니원침 (8749)



나주 초동생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 불복 항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동생 성폭행범 고종석(24)씨가 판결에 불복해 5일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6일 “고씨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성폭행범 고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중독 약물 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주여성들의 웃음이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 여성들이 웃음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업실패 후 차에서 연명하다...

나주시 40대 숨진 채 발견

사업에 실패하고 승용차 안에서 어 렷사리 생활해오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오후 1시 47분께 나주시 중앙로의 한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이모(4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씨의 어머니가 발견했다.

이씨는 승용차 뒤편에 웅크린 채

숨져 있었으며 차 안에서는 컵라면 용기와 술병도 다수 발견됐다.

제과 유통업을 하던 이씨는 1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머니 집 인근에 세워둔 차에서 생활하던 김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여성 둘 살해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은 6일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광주일보 6일자 6면 보도)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일 호출을 느끼고 있던 예전 직장동료 A(여·21)씨를 광주 북구의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애인인 B(여·40)씨가 이를 알면 해어지게 될까 두려워 같은날 밤 B씨 역시 승용차에서 목 졸라 살해해 트럭에 싣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버지 살해한 범인 엄벌해 주세요”

中 1년생, 국회의원 등에 눈물의 호소

“만 타국에서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아들이 제가 꼭 풀어드리고 싶어요.” 지난 1일 민주통합당 추미애의원 사무실로 예정 한 사연이 담긴 이메일이 도착했다.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살해당했는데 범인을 엄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이는 광주시 북구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백모(14·중1)군이다. 백군은 지난 2005년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오고 있다. 71세의 할머니

수년간 연락이 안돼 행방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2010년 겨울 필리핀으로 갔다가 함께 사업했던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운명했다는 것이다. 사건과 관련된 인물 3명 중 2명은 올초 구속된 상태다.

백군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해자사회의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를 살해한 게 맞다면 살인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범인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결핍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 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항용 원장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 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스름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스름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항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항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관 제090204-공-4738호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2013년도 제 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 등!!

- 교육인내
 - 교육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 보육교사 자격 인정으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면이점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현정실습(10일)이 가능한 분야이어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